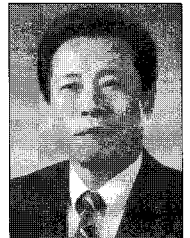


흙에 살리라.



곽인식 통일회원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50회를 맞이하면서 주마등 같이 떠오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975년도로 기억된다. 제16회 대회에 나는 당시 협회 정장섭 전무님의 부름을 받아 협회에서 일조를 하게 되었다. 나의 업무는 주로 농약회사나 종묘회사의 협찬 광고를 받는 일이었다. 농약회사의 사무실은 거의 서울의 중심지인 서울 명동에 있었다. 열심히 농약회사를 찾아가 협찬광고를 부탁하는데 정장섭 전무이사님과 당시 함께 동행하면서 점심시간에 명동에서 설령탕 한 그릇에 소주 2병을 마시고 정전무님이 “아! 재벌 부럽지 않구나.” 하신 말씀이 35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그간의 많은 세월이 흘러 농촌출신인 내가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53년만에 내가 낳은 고향으로 귀향한 지도 7년 차가 된다. 내가 낳은 마을에서 6km 더 나아가 광주시와 양평군의 경계선인 광주시 퇴촌면 영동2리 구룡마을이다.

6.25 전에는 7세대가 있었고 워낙 두메산골이다 보니 6.25사변 때 아군이나 인민군이 한 사람도 안들어 왔다는 두메산골이다. 그럴 이유는 도로변에서 800m나 들어와 있으니 마을이 있는 줄도 모르는 마을이다.

지금은 전원주택지로서 각광을 받는 서울의 근교 마을이 되어서 인구가 있는 마을이 되었다. 나는 대지와 텃밭을 합해서 350평에 논 450평을 결합하면서 70세를 지나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 텃밭 100평에서 고추, 파, 시금치, 쑥갓, 쪽파, 토마토, 오이, 감자, 가지, 상추, 호박 등을 심어서 자급자족하고도 남아서 서울의 지인들에게 주고도 또 남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풍족한 생

활을 하고 있다. 논에서는 쌀이 8가마니 나오니 생산비를 제외하고도 4가마가 남으니 1년 먹을거리는 충분하다.

마을은 40여호가 되어 이(里)로 승격되어 나는 마을에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되어 이장님을 보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안식구는 새마을부녀회장이 되어 70대를 지나서도 우리 내외는 농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어제는 새마을부녀회장이 2박3일 교육이 있어 홀아비 신세가 되었다. 아침에 가지 1개, 고추 6개, 파, 호박 반쪽을 썰어 넣고, 고춧가루, 후추, 참깨를 넣어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어 끓이는데 이웃집 나물이 어머니께서 문을 두드리신다. 어서 오세요. 하니 만두를 수북이 담아 양푼으로 그득하다. 내가 만두를 좋아하니 갖고 오셨단다. 내가 끓인 찌개에 만두를 7개 넣고 어제저녁 이장님과 마을 율OO 노인과 술을 한 잔하고 해장생각이 나는데 안성맞춤 격이 되었다.

밭에서 바로 딴 야채에 찌개에 만두를 올려놓고 소주 반주를 하니 정장섭 선생님이 1975년도 명동에서 “설령탕 한 그릇에 소주 한병 마시고 재벌이 부럽지 않다”는 말씀이 주마등 같이 떠오른다. 물레방아 도는 내력 유행가 가사에 “벼슬도 싫다마는 명에도 싫어,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길쌈을 매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의 우는 곳을 알아보련다.”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흙에 살리라.

제50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대성황을 바라면서……㉞



가을단상

여 보 여
김천지회장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했다.

하늘이 높다든 것은 해가 지구와 멀리 떨어져서 기온이 내려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동식물은 해가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옷을 갈아입는다.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털갈이함은 아름다움을 뽑내기 위함이 아니다.

피꼬리 울고 꽃이 흐드러져 산의 빛깔이 짙고, 골짜기의 아름다움은 이 모두 하늘과 땅의 환상적인 모양이고 물은 마르고 잎은 떨어져 들이 앙상하고, 바위가 메마름은 실로 이 하늘과 땅의 참모습을 봄이라.

채근담(菜根潭)의 후집(後集) 중 한편이다.

풍성하고 아름답던 세월의 흐름에서 이제 낙엽 뒹구는 소리를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삼라만상의 한 모습을 더듬어 본다.

낙엽의 비밀은 무엇인가? 가을이 되면 햇볕을 쬐는 시간이 차츰 짧아지고 온도가 내려간다. 그때까지 나무는 잎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여 몸의 양분이 되는 당분을 만들어서 활동을 계속하다가 기온이 더 낮아지면 활동이 둔해지고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올리는 힘이 약해지게 된다.

이 때 나무에 잎이 그대로 있으면 증산작용이나 광합성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져서 나무가 말라 죽을 염려가 있다. 그래서 나무는 잎자루 밑에 “떨켜”라는 특별한 세포로 된 층을 만들어 뿌리에서 빨아 올린 수분이 잎으로부터 달아나지 못하도록 잎을 떨어뜨리게 된다. 잎이 떨어져 나간 자리를 보면 “코르크” 모양의 막으로 보호되어 있다. 그런데 낙엽수는 잎순과 꽃눈이 겨울눈이 있어서 봄이 되면 새

“움”이 돋는 생명의 신비가 숨어 있는 것이다.

낙엽을 바라보는 보통사람들의 분위기는 외로움과 어두움의 느낌과 단풍을 보면서 환상적인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낙엽이 제멋에 따라 노랑, 빨강, 푸른색, 요즈음 인기 있는 누런덩이 호박 같은 낙엽, 홀쭉이, 뽕뽕이 낙엽이 온갖 풍상을 안은 채 발가벗고 김천을 달린다.

낙엽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별난 대접을 받기도 한다. 산골의 절이나 시내의 낙엽이나 내장산, 설악산의 단풍진 낙엽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환경미화원의 빗자루 끝에 두들겨 맞는 낙엽은 소각장에서 일생을 마감해야 하고 농부의 갈퀴에 걸려든 낙엽은 내년 농사에 쓸 거름감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나무는 내년 봄 새옷을 입기 위하여 벗어 버리지만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벗고 갈아입는가?

삶의 황혼이 오기 전에 경건의 연습을 하는 진지한 자 세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순간들의 참모습을 일깨우는구나. 산과 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더욱 바빠지지만 하는 농촌풍경이지만 가을을 닮은 사람과 함께 가보고 싶다.

어느 날 문득 탈출하고 싶은 잠시 바람난 여인처럼 안겨오는 낙엽을 보면서 눈시울이 괜스리 뜨거워짐은 왜일까? 언젠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도 이 낙엽의 몸부림 소리를 듣는가?

뒤뜰의 갈나무 잎에는 빨강고 노랑고 푸름이 어우러진 황홀함이 이 좋은 때에 단풍구경을 함께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사람들의 가슴에 문득 늦가을을 어지럽힌다. ㉞